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양은희 미술사학자 : 로댕에서 브랑쿠시까지

2020. 5. 23 (3회차)

* 강의 내용

서양조각은 인간의 형상을 통해 이념,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 종교의 시대를 거쳐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된 이후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바로크 시대를 거쳐 신고전주의가 대두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을 모방하는 분위기로 인해 고전적 인체 형상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유럽문명이 로마제국을 통해 확산된 그리스 문명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비례, 조화, 균형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미를 인체에 표현하던 그리스 시대의 미학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그렇게 서양조각의 근원은 그리스 시대의 미학으로 귀결된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로댕(1840-1917)은 19세기 유럽에 정착된 그리스 중심의 조각 관습을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예술가로 평가된다. 그는 조각의 역사에서 베르니니 이후 등장한 천재적인 작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조각가와는 달리 전체적인 균형, 세부적인 묘사,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하기 보다, 재료를 감각적으로 다루며 미완성으로 남기기도 하고 토르소 등 신체의 일부만 일부러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흙으로 형상을 빚은 후 청동으로 떠내는 작업을 했으며, 인체 전체를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 신체의 일부를 따로 제작하여 후에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흙으로 빚으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그대로 남겨 작가의 손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곤 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기 작업 <코가 부러진 남자>부터 말년의 <발자크> 동상까지 로댕의 다양한 작업을 살펴본다. 또한 그의 연인이었던 카미유 클로델(1864-1943)의 작업과 비교하며 두 사람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조각의 근대성은 이탈리아의 로소(1858-1928)에게서도 나타났다. 로댕과 유사하게 거칠면서도 즉흥적인 모델링을 선보였던 그의 작업을 살펴본다.

근대 조각은 조각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마티스, 피카소 등 회화를 주로 한 예술가들도 조각적 실험을 하곤 했다. 회화에서 야수파, 입체파 등을 선보였던 그들이 정작 조각에서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회화와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면에서 유사했는지 살펴본다.

모더니즘 미술은 ‘모더니티’를 여러 맥락으로 확장하곤 했다. 그 맥락 중의 하나는 새로운 세기, 20세기에 맞는 현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일견 유토피아적 사고의 발로인데, 타틀린, 보치오니 등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조각의 언어를 유토피아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사례들도 살펴볼 것이다.

브랑쿠지(1879-1957)는 모더니즘 조각의 대표적 작가이자 추상조각으로

유명하다. 루마니아 출신이면서도 파리의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그는 피카소, 뒤샹 등 당대의 아방가르드 작가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를 구현해냈다. 로댕에게서 대가의 면모를 보고 배우기도 했던 그는 대가 아래서 자신의 세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후 대리석, 청동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여러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가이다. 브랑쿠지가 어떻게 구체적 형상을 포기하고 추상으로 진화했는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인체 두상, 새 등을 완전한 추상으로 구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추상의 과정이 반복해서 시리즈로 나타난 과정을 살펴보고 그의 조각에 미친 여러 영향관계에 대해 알아본다.